



# 한인회보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The Wash.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Wash. State Korean Association  
P.O.Box 24992 Seattle, WA 98124  
James H. Kim Publisher  
Soo Ho Lee Editor

Vol. 4 No. 3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MARCH 1977



(경복궁 국립박물관 The National Museum at Kyongbok-Palace)

## — 한인 봉사센터를 마련 합시다 —

교포 여러분 가정에 기쁨이 충만 하기를 기원 합니다.  
 교포 여러분들과 이민 오시는 우리 동포를 위해서 한인회가 금년에 꼭 하나 성취 하고싶은 것은 "한인 봉사 센터"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이 봉사 센터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점을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즉 장기적인 직업 알선, 정부 관계 사무처리, 사회 봉사, 정부 혜택을 받는 상담 및 알선 등입니다. 이미 한인회에서는 봉사 센터에서 일할 사람(상담자 및 사무원)을 두기 위해서 정부와 사립 단체에 자금 신청을 하였던바 큰 사무실과 전화만 준비하면 즉시 도와 주겠다는 회답이 왔습니다. 이 시급한 때이지만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한인회는 언제나 운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무실을 빌리고 전화를 마련할 수 있도록 까지 만이라도 여러 교포들이 도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부에서 주는 자금으로 운영해 갈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 임원과 이사진에서는 모금 운동에 출전하여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을 위하여 다 함께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10불도 좋고 100불도 좋습니다. 뜻을 모으면 우리 "한인 봉사센터"는 곧 출발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뜻을 이해하고 돕고자 하시는 분들에게서는 한인회보 안에 있는 한인회 주소로 기부금을 우송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평안을 빕니다.

한인회장 김형진 드림

# 얼떨떨이 老學生 뉴욕에 내리다

서 두수

얼마 안된 사침이 있으나 신도학생이 막상 상항 유 석촌을 직별하게 되어 짜장 섭섭 하였다. Oakland 역에서 기차에 싣려 New York 으로 향하였다.

이상한 차양이 달린 모자를 쓰고 창에서 보살피 주는 사람이 지나가기에 차가 뉴욕을 몇날 후 이른 아침에 닿는다니 초행인지라 못내라게 될까 걱정이라 했더니 No worry. ' 내가 알려주마고 해주어 할결 마음이 놓였다. 기름지기만 하여 보이는 뚝뚝은 평 원을 배달리는 기차는 동요도 없었다. 차창을 경하여 보이는 들 모습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나 1883년에 처음으로 이 나라에 수교차 보내온 한살의 사절 일 행에 들었던 유 길준 청년정치가의 모습이 연상되었다.

비스듬하게 쓴 통영갓이 바람에 날리워 버리도록 차창 밖을 내다보는 이 청년의 머리에는 나중 그가 일행을 작별하고 Cambridge 에 사는 Percival Lowell 이라는 이의 힘을 빌어 New Hampshire

주에 있는 Salem이라는 작은 타운에서 농경법을 배 워 가겠다는 일념에 사로잡혔던 모습이 우스꽝스럽기만 하지는 않았다. 이 청년은 뉴욕에서 미국 대통령에게 일행과 함께 접견 되었는데 갓을 못쓰고 상투바탕으 로 사진까지 찍게 되었다고 한다. 세계에서 이듬한 뉴욕에 이 청년이 쓸 한국 갓 하나 파는 가게가 없었으니 미국도 그렇고 그렇다고 이 청년 외교관에게 는 인상 되었을지 모른다. 기차는 자꾸 동쪽으로 달

고만 있었다. 뉴욕이 가까워 가고 있을 것이었다. 내일 새벽이면 목적지에 닿는다는 전날밤은 무슨 소

유인지 눈이 잘 불려지지 않더니 비몽사몽간에 덜컹 하는 소리에 눈을 번쩍 떠보니 어쩐 셈인지 기차는 멈춰져 서 있는데 흰히 새어가는 차창 밖은 키 큰 사람들이 서성거리는 듯 한데 귀에 들리는 소리는 기쁨을 시켰다. 뉴욕·뉴욕 이라고 연방 외친다.

창간을 위해서라도 나가야 될 지음에 깨워주겠다고 정 념 장갑한 승무원 사나이가 놀란 빛으로 뛰어와서 하 는 수작 봐 " 버리지 말라고만 거둬준다. 외국이라 꼭 놀러 두었던 화가 꼭대기까지 치밀어 올라

뉴욕이 어딘지도 모르는 주제에 무엇이 어떨고어짜?

내리고 말아야지. 갓 독립된 나라 선비이니 독립 적으로 내려야지. 승무원이 커녕 나중은 가재는 개편으 로 옆에 있던 사람마저 뉴욕이 아니란다. 사람들이 이 산도 하이, 미국서 살면 사라도 모르게 되나 보다.

미국사람들은 정말 모를 노릇이군. 그래도 내가 ABC정도는 읽을줄 아는줄 과대평가를 하였는지 승무원은 종이포각 두개를 꺼내어 무엇인지 휘알리더니 소학교 일년급 아이 다루듯 배게 번갈아

내밀면서 한번은 no 한번은 yes 한다. no는 뉴욕쪽이고 yes는 Newark 이라고 되어있었다.

나도 눈치코치가 있는 한국산 양식인지라 터득하여 프덕이면서 그래도 예절을 아는 나라에서 귀 온 교양 을 과시하여야겠기 델큐 하고 넥타이를 천천히 매기 시작하였다. 그 다음번 정거하는 곳은 자개나라의 대 학도에 조그마한 보행이라도 이룩했으면 해서 배우기

위해 찾아 온 곳이나 이름하여 New York City이었다. (글쓴이: University of Washington 교수 한국인회 이사장)

## 고 박 정분 여사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3월 2일 Kent 지역에서 일어났던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 고 박 정분 여사께서 별세 하였습니다. 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와 기차가 충돌 하여 일어난 이 사고는 우리교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고인의 장례식은 3월 9일 ISSAQUAH에서 거행 되었습니다.

고인의 유족으로는 슬하에 김 치솔 장남을 비롯하여 2남 2녀가 있습니다. 우리교포모두 가 고인의 명복을 비는 바이며 남은 유족을 위로하고 따듯이 돌보아 주어야 겠습니다.

한국회 회장 김 형진씨는 3월 9일, 고인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우리 교포 모두의 이름으로 조의금을 전달 하였으며 남은 유가족을 찾아 위로 하였습니다.

# KOTRA 안내

이 만 득

KOTRA(대한 무역 진흥 공사)는 대한민국의 수출 진흥을 기본 목적으로 15년 전에 신설된 비영리 기관입니다. 고간 일익 치열화 하고 있는 수출경쟁 에 대처함과 동시에 국제외업계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코자 내적 강화와 외적 확장을 기 함으로서 현재 해외 조직망(KOTRA'S OVERSEAS NETWORK)은 77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미국에는 8개의 무역관이 있으나, 이는 미국이 우리의 최대 수출입대상국 일뿐 아니라 앞으로 잠재적 수요개발로 인한 시장확대의 여지가 밝음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저의 Seattle 무역관도 동북쪽에 부흥코자 약 3년 전에 신설된 후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으로 오늘날의 기반 구축과 우리의 지상과제인 수출입국건설에 기여하고 있음을 이자리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세계 도처에서 활동하고 있는 KOTRA는 국내업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접수·제보하고, 외국업체가 필요로 하는 상품 정보 및 기타 관계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Marketing에 대한 정보 및 자료 교환을 포함하여 거래추진 상품안내 시장조사 및 기타 이에 수반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제약된 여건 즉 인적·시간적 제한과 현지 제반사정 등으로 인하여 적기에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한국의 대미 수출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바 76년도에는 총수출 실적 81억불의 30%정도인 24억불 이상에 달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미성주 수출 실적은 1억불 이상에 달하였는데 이는 대성 통주의 대미수출 실적 1.2억불에 비하여 약 2천만 불 정도의 무역 역조를 시현하고 있는 실정인바 앞으로 교역 균형을 위한 노력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미성주 주요수출품목은 전자제품, 신발류, 의류, 장난감등 완제품 위주임에 반하여 주요수입품목 은 Wheat, 산동물, 목재, 펄프, 고철 등 원자재류 위주

로 되어 있습니다.

1977년도는 한국의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시작되고, 사상 처음으로 100억불이란 대망의 수출 목표가 책정된 "대" 임으로 이의 목표 달성을 위한 여 러분의 협조가 가일층 요망되고 있습니다.

금 77년도 대미 수출목표 32억5천만불 달성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저의 씨아들 무역관은 주재지역 인 워싱턴주를 포함하여 오리곤, 아이다호, 알래스카, 몬타나, 와이오밍 등 인근 주의 시장개척을 위하여 현지 에 출장을 실시함과 동시에 각종 카다로주 일부의 건 본등을 비치,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오니 활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이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고 사업의 날 익 번영을 앙축 합니다.

\* KOTRA Seattle 무역관 주소  
KOREA TRADE CENTER  
The Bank of California Center  
Seattle, wa, 98164

Tel: (206) 623-3558/9

\* 교역진흥의 일환적으로 국내에서는 년2회 "Seoul TRADE FAIR"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는 4월 7일 부터 5월 12일 까지 여의도에서 개최됨으로 KOREA AIR LINES에서는 특별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 쓴이: 씨아들 무역관 관장)

집 없으면 집은 사시고  
 집 있으면 집은 파세요

김 현 중 부동산

(FRANK) HYUN CHOONG KIM

- 무료상담: 관산 이사로 양산 헤드라인
- 무료상담: 침묵한 잠정물 헤드라인
- 취급종류: 주력·아파트·호텔·도지
- 점포: 기타사업 투자안내

Phone: SEATTLE: RES. 774-7828, BUS. 774-7828, 525-7200  
Tacoma: 437-3112

# 주택 구입에 관한 일반 상식

진 김 (JEAN KIM)

집을 사는 것은 하나의 가장 중요한 개인의 투자이다. 1년에 집값이 10% 내지 15% 증가되고 있다. 전미국의 평균 집값이 4만불 정도라고 한다. 씨애틀-타코마 지역은 집값이 싼 편이다. 집을 사서 매달 물어가면 나중에는 배집이 되고 또 은행에 지불하는 이자와 세금도 수익세금에서 뺄수 있다.

1. 집을 살 능력이 있는가를 먼저 계산 할 것.  
매달 수입에서 집에 드는 비용이 25% 이상 가지 않도록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상 가면 너무 무리가 오고 돈을 벌어서 집에 다 들어가면 다른데 쓸 수가 없다. 즉 \$800 월급이라면 매달 집에 들어가는 총금액이 \$200 이상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집 가격은 1년 총수입의 2배 반 이상이 되지 않도록, 즉 연봉금액이 \$9,600이면  $\times 2.5$  (2배 반) = \$24,000 짜리 집을 사도 좋다는 것이다. 이상하면 무리이다.

2. 은행 융자 관계  
집을 살 때 은행을 통해 돈을 빌리자면 현금 (Down Payment) 15% 내지 20% 내야 된다. 즉 \$24,000 집이면 \$3,600 내지 \$4,800의 현금이 필요하다. 정부(FHA) 보증하에 집을 사면 4% 내지 8% 즉 \$960 내지 \$1,920의 현금이면 되고 또 정부 VA (군에서 제대할 사람을 위한 혜택) 보증은 현금이 더 적게 든다. 좋은 집들은 FHA나 VA를 통해서 잘 팔지 않으려 한다. 그 이유는 판매자에게 손해 보는 비용이 있다. 즉 Discount이다. 예 \$29,000 짜리 집을 FHA를 통해 사면 현금이 \$1,200쯤 들고, 이자는 8.5%, 매월 지불액은 \$225, 세금과 화재보험 \$40이 든다. 매월 지불총액이 \$265 인 셈이다.

3. 위치 선정  
집 살 곳을 정해서 그 지역에 있는 복덕방을 찾

을 것. 위치가 중요하다. 직장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이 좋다. 그리고 버스 교통이 편리한 곳이 더 좋다. 학교가 어디 있는가를 알 것. 또 상점 중심지도 (Shopping Center) 알 것. 이웃집들이 괜찮은 집 들인지? 그 다음에 복덕방을 찾아서 집가격은 어느정도 세로, 방은 몇개 등 필요한 것 즉 위치, 마당, 부엌, 화장실 등을 알려주면 복덕방 사람이 집을 찾아 준다. 복덕방은 집을 팔고 사고 하는 전문 사업체이기 때문에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을 위해 공평하게 일을 해 주고, 계약서류, 은행 융자 관계등을 다 알선 해 준다.

복덕방을 통하지 않고 개인끼리의 직접거래는 조심 할 일이다. 전문지식 없이는 위험하다. 복덕방 중에 R 사인 불친것은 복덕방 협회에 가입한 회원의 명칭이다. 또 MULTIPLE LISTING (다수 지역 판매 할 수 있는) 은 하나의 복덕방만이 팔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덕방도 거래 할 수 있다는 말이다.

4. 계약  
집을 정했으면 계약금 (EARNEST MONEY) 을 내고 집을 얼마 가격에 사겠다고 제안 (OFFER) 서에 사인하면, 판매자가 사인을 한 후 완전한 계약이 된다. 이후 서류작성 등자신청 등 모든 절차를 완료 (Closing) 할때 까지 복덕방에서 도와준다. 완료 할 때까지는 한달 내지 여러달 가는 것도 있다. 부동산에 관한 모든 문제는 복덕방을 찾아서 상담하는 것이 좋다.

(글 쓰이: REALTOR  
DEL BIANCO REALTY INC. 근무)

## 백 세현씨 공인 침사 자격 획득

교포 백 세현 씨는 California 주에서 발행된 공인 침사 자격증 (365호) 을 3월 10 일자로 받았다고 한다.  
연락처... 937-7115



딸 딸 이: 박사님, 참된 목자란 어떤분을 말하나요?  
K 박사: 명예도 없고, 불쌍하고, 병들고, 가난하며, 천대 받고 슬퍼하는 사람들의 친구를 말하겠지.  
딸 딸 이: 그런 목자가 있나요?  
K 박사: 강단에서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를 못 들었나?  
딸 딸 이: 자기가 바로 그런 목자라고 하면서도 어떤 목자는 그 반대의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K 박사: 부자의 친구, 박사의 친구, 명예있는 사람의 친구, 초대 받기를 좋아하는 목자 말이지?  
딸 딸 이: 그런 목자는 대개 자기 자랑의 설교를 하고 자기가 유명하고, 제일 유식한 것 처럼 생각하고 있으며, 천국행 티켓을 자기가 발행 하는 듯이 말 하고 있어요.  
K 박사: 자기 위에 하늘 있는 줄 모르고 말로만 활짝 같이 잘 하는 목자는 입은 훌륭하지만 턱이 없지.  
딸 딸 이: 훌륭한 목자도 많아요. 어려운 사람들의 직장을 알선하기 위해서 자기 일처럼 동서로 뛰면서, 병들고 가난한 사람의 친구가 되어 같이 울고 같이 웃는 목자 말이에요.  
K 박사: 우매한 사람들이 볼 때에는 권위자 있고, 설교를 이치에 맞게 잘 하고, 기도도 멋지게 하지만 하나같이 보시기엔 가소로운 목자도 가끔 있지. 참된 목자는 우선 턱이 있어야 하는 거야. 설교나 기도나 재치 같은 것이야 배우들이나 코메디언이 더 낫지.  
딸 딸 이: 박사님, 다음 호에는 "미국에 있어서의 한국 교회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죠.

# 뉴스 NEWS

## 김 회장 E.O.C. 이사회에 참석

한인회 김 형진 회장은 지난 3월 4일 E.O.C. 이사회에 참석 하였는데 이날 김 회장은 우리 교포들의 직장 알선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설치될 예정인 한인회의 "봉사 센터" 와 E.O.C가 협력하여 공동 노력 할 것을 제안, 합의를 보았다고 한다.

## 3.1절 기념식

지난 3월 5일 밤 U.W에서 있었던 3.1절 기념식에는 약 60명의 교포들이 참석하였다. 이 식전은 U.W 학생회와 한인회가 공동으로 주최 하였으며 이날 기념사는 서 두수 박사께서 하셨다. 식이 끝난 후에는 한인회에서 준비한 간단한 다과회가 있었다. 또 한인회를 대표하여 김 형진 회장은 한국인 학생회 장학금으로 금 일봉을 전달 하였다.

## 한국 문화를 소개 (Mrs. Sonia Kim)

지난 2월 28일 Sanislo 국민 학교에서는 그곳에 재학하는 23명의 한국 어린이들과 그들의 친구들을 포함한 50명내외 학생들이 "한국 문화 소개"에 관한 시간에 참석 하였다. 1시간 동안 태극기 만들기와 한국 춤 배우기, 한국 음식 맛보기, 한국 고유의 물건을 보기 (인형, 병풍, 자계상, 방석, 물, 팽이, 고무신, 버선, 색동 저고리) 등의 순서가 있었다.

씨애틀 여러지역에서 이와 같은 행사를 주관 해온 Mrs. Sonia Kim은 미국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의 단면들을 소개 하는 일에 공헌이 크다 하겠다. Mrs. Won Bon O 교사의 치밀한 준비가 뒷받침 하였다.

## 한국일보 씨애틀 타코마 통신원 조 병우씨

- 임명 일자: 77년 2월 1일
- 지방판 발행: 매주 목요일 씨애틀, 타코마 뉴스 발행.
- 주소: 4510 Eastern Ave. N. Seattle, WA. 98103
- 전화: 632-5280

<수필> 이민 1년생 (투고 작품)

박 신 자

버들강아지 포시시 눈 뜨고 노관 개나리가 필 무렵  
이면 호들갑을 떨며 봄을 노래하던 소박적인 낭만이  
둔감해진지 오래. 그래도 가끔은 꼬마를 품에 끼고  
앉았노라 소리없이 나리는 창밖의 지리한 비에 따  
뜻한 아랫목을 그리다 또 한번 고국의 아릿한 그리움  
을 임태하고 만다. 교생이 많다고 말이 통하지 않는  
다스니 외로움이 무섭다스니 어찌고 어찌고 한 말들이  
모두 믿어지지 않고는 선진국의 문명을 나만은 호강  
스럽게 느껴리라고 은근히 소원이라도 이루듯 김포공항  
을 떠날 땐 천지들의 마지막 같은 뜨거운 정을 아취  
워 하며 내 쪽 은혜 입은 님들에게 卍로 보답하리라고  
무겁게 따짐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을 기체속에 내려들  
려고 앉았던 작년 오늘의 내가 새삼 가소롭다.

말로만 들던 미국! 참으로 다르다. 말이 다르기에  
영원히 이 답답한 땅에는 있을 것 같다. 생활이  
다르기에 말이 없는 감정들이 죽을 때 까지 통하지  
않을 것 같다. 모양이 다르기에 함시 소외된 열등으  
로 욕망이며 명예가 보잘것 없을 것 같다. 하물며  
같은 피를 나눈 한겨레도 이민 선배와 후배의 대화가  
어색하다. 이민 1년생은 10년 선배와는 어울리  
지 못한다. 그래 이민 1년생과 2년생은 고국의 뒷  
골목을 상통한 유행어로 충무로 명동을 부담없이 거닌  
단다. 미국생활의 풍요한 자연 자원에 신기한 미역이  
며 꿀, 조개, 계집이등 흥미롭게 주말이면 조르지만 5  
년 선배만 해도 모두 싱겁고 우습단다. 율령이적 추  
억을 망각해 버리곤 말어요. 병어리 키억어리에 멧  
모르고 지나는 이민 1년생에게는 같은 얼굴만 보아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국의 정을 느끼고 형제처럼 의지  
하고만 싶어진다. 외로워 약해진 마음은 이웃의 좋은  
안배자에 의해 크게 달라진다. 다람쥐 체바퀴 돌듯  
시간에 쫓기는 바쁜 미국 생활이지만 주말만은 가  
끔 주위의 이민 1년생을 의식하고 선배가 겪었던 고  
생만은 털어줄 수 있는 한겨레의 따뜻한 조인이 기  
다려진다. 이민 1년! 이제 두려움을 이기고 첫

돌 지난 아가파방 한 발자욱씩 밖을 향해 부딪쳐 봐  
야 하겠다. 근면 검소한 이곳 사람들의 생활은 받아  
들이고 마음에 안드는 가족제도 만은 모른척 부모를  
공경 할 줄 아는 까만머리의 우리집 꼬마를 위해 조  
국의 공지를 갖고 조상을 생각하듯 조국을 열심히 가  
르쳐야겠다. 오늘도 우리말을 익히고 노래하며 아바  
의 집시보다 더한 방향의 고통을 함께 위로하고 벌써  
이민 2년의 새 아침이 밝아 온다.

**구직 강좌 안내** Employment orientation

E. O. C에서는 현재 직업을 찾고계신 교포 여러분  
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직에  
따른 기본적 상식에 관한 강좌를 개최 한다고 하오  
니 많은 교포의 참석을 바랍니다.

- 다 음 -
1. 일시: 1977년 4월 20, 21, 22 (3일간)  
매일 10시 - 오후 4시
  2. 장소: 한인회 사무실  
주소 - 622 South Washington St.  
Seattle, Wa. 98104  
% Center for Asian Arts
  3. 강좌 내용
    - ① 워싱턴 주내의 직업 현황과 전망
    - ② 직업을 찾는 요령
    - ③ Application 작성 요령
    - ④ 이력서 작성 요령
    - ⑤ 인터뷰를 하는 요령
    - ⑥ 취업기회 준동에 관한 권리 해설
    - ⑦ 영화 상영
  4. 연락처: E. O. C (담당자: 변 종혜씨)  
전화 - 725-8200
  5. 참석 인원을 사전에 파악 해야 한다고 하오니  
참석을 희망 하시는 분은 4월 15일 까지  
E. O. C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 참가비는 없으며, 이 방편의 전문자를 초빙한다고  
합니다.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교육"에 대하여**  
Mrs. Kyung Sook Baek

미국에 이주해 오신 많은 외국사람들의 바람직한  
자녀 교육을 위하여 입법화 된 "이중 언어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코자 합니다. 낯 설은 교육  
환경 속에서 이에 적응하려고 괴로움을 겪는 우리  
어린이 들에게 미국교육과 병행하여 미국 정규교육의  
이해를 빠르게 할 수 있는 한국인 학생만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한.미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 교육이란 무엇인가?**

- 영어를 못하거나 부족한 학생에게 한국어로서  
학습을 도와주며 언어 장애 때문에 학습이 뒤떨어  
지는 것을 막아, 보다 나은 교육효과를 거두게 하는  
교육 방법입니다.
- 학생들에게 한국 고유의 문화 및 관습을 일깨  
워 주고 그들의 정신세계의 밑바탕이 되는 문화적인  
배경을 알게 하여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이해를 돕  
고 나아가 민족적인 긍지를 지녀 미국내에서의 소  
수 민족이 갖기 쉬운 사회에 대한 소외감을 제거해  
주며 자신감에 넘쳐 있는 인간을 육성 하기위한  
교육제도입니다. 특히 모국어 유지에 강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정규 교과 과정을 제공하며 제2 외국어로서의  
영어교육에 집중적으로 중점을 두는 교육과정입니다.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 교육은 왜 필요한가?**

정신적인 배경이나 관습, 전통 또는 다른 모든 면  
에서 한국과 완전히 다른 미국사회에 들어온 우리  
들은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공공히 판단도  
하기전에 무조건 미국사회의 모든 생활방법을 받아  
들이려고 애쓰기 쉽습니다. 이럴때 생기는 정신적인  
충격이 교포사회에 많은 문제점을 던져 줍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미국교사가 특별  
히 마련된 한국 어린이를 위한 교과 과정도 없이  
한국 학교와는 다른 분위기 속에서 우리들의 어린이  
들을 가르칠때 많은 충돌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는 학부모들은 한국학생을 정신적  
으로 지도 할 수 있는 한국인 교사의 필요성을 느  
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어특수교육과 다른  
필수과목들에 대한 한국어로써 학습을 도와주며 또한  
한국 교육문화 및 모국어 유지에 중점을 둠으로써  
두 나라의 이질적인 문화권에서 오는 갈등과 충충을  
없애며 영어와 모국어를 동시에 구사 할 수 있는 효  
과적인 교육방법입니다.

**현재 한국프로그램의 진행 상황**

- 한국인 교사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 시애틀 학구내 미국인 교사들의 한국 학생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키기 위한 교사 교육.
- 한국 프로그램을 위한 교재 작성, 자료 모음 및  
보조 교재를 출판.
- 한국어로써 언어 시험, 수학 시험문제 작성 중.
- 학교와 관련된 행정적인 사무처리에서 한국인 학부  
형의 통역이나 기타 편의 제공.
- 학생들의 전학 문제.
- 기타 일반 상담 문제.

\* 이 프로그램에 대하여 더 알고 싶은분, 문의사항  
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으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Mrs. Kyung Sook Baek (백 경숙)  
Marshall Curriculum & Instruction  
Center,  
Room 305, Bilingual office.  
520 N.E. Ravenna Blvd.  
Seattle, Wa. 98115  
Tel. 587-6434 } office  
587-6435 }  
587-6425 }  
365-4128 - Home

— 교회 소식 —

★ "씨아를 한인 장로 교회" 옮김

씨아를 남쪽에 위치 하였던 "씨아를 한인 장로교회" (안 성진 목사 시무)가 북쪽으로 예배 저소를 옮겼다고 한다. 3월 26일, 교우들이 모여 피아노를 비롯한 주요 기물들을 옮긴 이 교회는, 4월 첫주 부터 새 장소에서 예배 본다고 한다. 오래 동안 기도하던 중 미국 교인들의 따뜻한 배려에 감격하면서, 마치 자신의 교회와 똑 같은 기분으로 이사 하게 되었다고 한다. 2.5 에이커나 되는 넓은 대지에 자리잡은 교회라고 한다. 옮기는 이유로는 ① 현재의 교회가 비좁고 ② 번두리에 위치하여 찾기가 힘들고 ③ 주일학교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고 ④ 교인의 다수가 북쪽에 거주하기 때문이라 한다.

• 주소; 2728 N.E. 100th ST.  
Seattle, Wa. 98125  
• 전화; 523-2728  
• 예배시간; 주일 학교 - 오후 1시 반  
(암시) 본 예배 - 오후 2시

★ 부활절 합동 예배. 4월 10일 새벽 6시

와싱턴 주 한인 교역자 친목회인 목사님들의 모임이 지난 2월 7일, 최 용걸 목사 댁에서 있었다고 한다. 이 모임은 2개월에 한번씩 있다고 하는데 이번 모임에서는 부활절 예배를 합동으로 보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 예배 시간 - 4월 10일 새벽 6시  
• 장 소 - "Federal Way 한인 선교회"  
(송 천호 목사 시무)

★ 타코마 한인 중앙교회 창립 5주년 기념행사 성료

3월 6일 오후 4시 타코마 한인 중앙교회에서는 창립 5주년 기념 행사가 약 400명의 교우·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성대히 베풀어 졌다고 한다. 기념 행사 의 내용을 보면 창립 5주년 기념 예배와 헌당식, 정 남식 목사 취임식, 신 통회, 이 강운, 오덕주 집사 안수식 등이다.

한국인 업체를 찾아서.....  
(A, K MOTORS)

지난 3월 초 씨아들에는 또 하나의 한국인 경영의 자동차 수리 공장이 개업 하였다. 나날이 한국인들의 사업체가 늘어나고 있음은 그만큼 교포들의 활약이 눈부사게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사업주 유 정길씨는 한국에서 부터 자동차 수리업에 종사 하였다고 하며, 미국에 와서도 알래스카를 비롯하여 여러 지역에서 계속 자동차 수리업에만 종사 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종류의 자동차든지 자신 있게 수리한다고 한다. 자동차 수리에만 15년의 경험을 쌓았기에 교포들의 기대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 수리를 해 드리겠다고 장담 한다. 그리고 교포들에게는 고장에 관한 체크는 무료로 봉사 하겠다고 한다. 자동차 고장 수리와 병행하여 Body Painting을 비롯한 Body Work도 일류 기술자를 두고 취급한다고 한다.

주소: 9500 N.E. Roosevelt Way  
Seattle, Wa. 98115  
전화: 525-9197

**헨리 장 여행사**  
9002 12th Ave. N.E.  
Seattle, WA 98115  
(206) 523-7057

- \* 단체 모국 방문
- \* 국제 국내 비행기 표
- \* 민원 서류(교포 여권, 여권 연장) 배부
- \* 각종 서류 작성, 수속 대행

**Henry Chang Travel Service**

**자동차 바디 공장**

J & P  
ORIENTAL AUTO BODY SHOP  
2336 S.W. Spokane St.  
Seattle, Wash. 98106  
(206) 935-9008

Res. 246-8786 경영주: 배 윤권

(투고 작품)

**인생은 어디로**  
오 정숙

명예, 재산, 부커 갖은 젊은 연예인  
그의 쇼 이름은 「치코와 사람」  
금요일 저녁이면 텔레비존 통해  
백만 이상 관중을 웃기던 치코

결혼 생활 몇 개월에 불화가 오고  
부인은 어디로 떠나 버리고  
치코는 생의 목적 찾지 못한 채  
전종으로 머리를 쏘고 말았지

모든 조건 좋은 것을 다 갖추어도  
마음의 공허를 채울 수 없는  
인생의 가는 길이 그 어디인지  
분명하게 아는 이 행복한 사람

- 치코의 죽음을 뉴스로 들으면서 -

★ 한인회 활동을 위한 기부금 납부자

- 남 성삼 (아리랑 바 경영주) ... 100 불
  - 신 호범 이사장 ... 100 불
  - 오 준걸 부이사장 ... 50 불
  - 김 길량 이사 ... 50 불
  - 김 형진 회장 ... 50 불
  - 이 종익 부회장 ... 50 불
  - 박 재인 총무 ... 50 불
  - 김 철준 섭외부장 ... 50 불
  - Rainier Bank Maynard 지점 50 불
- ※ 한인회 활동을 위하여 기부금을 내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소로 우송하시기 바랍니다.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 기부금은 수입세금에서 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 서남쪽(S.W)

JEAN KIM (진킴)  
전화: 932-1515 (사무실)  
932-3595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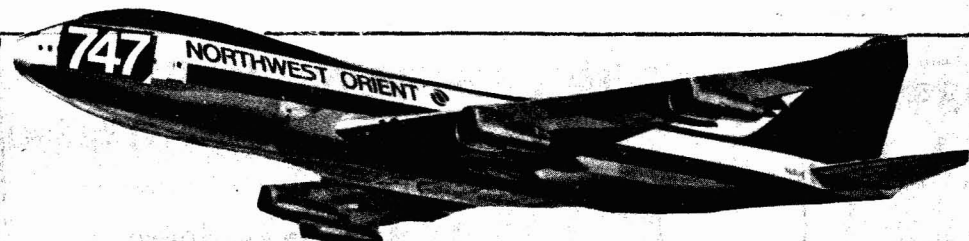
**DEL BIANCO REALTY** 9455-35th Ave. SW  
Seattle, Wa. 98126

한인회비 납부를 요망 합니다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한인회 운영을 위하여 교포 여러분의 자발적인 회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회비는 적은 액수이지만 10불 20불이 모이고 모여서 큰 사업을 이룬다는 것을 생각하여서 성의 있게 한국인의 뜻을 도와 봅시다. 매월 발행되는 한인회보를 받으시는 교포들의 성의 있는 협조를 바라며, 한인 봉사 센터, 설립 등 할 일이 많은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인 사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적은 성의라도 보여 주시면 한인회 운영이 잘 진행 될 것입니다. 회비는 수표를 이용 하시기 바라며 다음 양식을 기재 하여 동봉 해 주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한인회비	<input type="checkbox"/> 건축기금	<input type="checkbox"/> 운영 기부금
이름		
주소		
전화		
금액		

안에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보낼 곳: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 워싱턴 주에 오직 하나뿐인 교포를 위한 공인된 여행사

• Appointed by all Airline Companies officially  
MEMBERS OF: IATA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ATC (Air Traffic Conference)

- 최저요금, 친절봉사
- 이민수속 무료봉사
- 국내외 항공표 판매
- 매주 특별할인단체 모국방문



## 김의 여행사

Kim's Travel Service  
ROOM 606 • 603 STEWART • LLOYD BLDG.  
SEATTLE, WASHINGTON 98101  
BUS (206) 624-2227 - 624-2228

★ 바로 고침 - 김 천일 목사 → 김 일천 목사  
지난 2월호 '교회 창립'에 관한 기사에서 목사님  
성함이 잘못 기재 되었기에 이를 바로 고칩니다.  
"김 천일 목사"를 "김 일천 목사"로 고침.

### 재봉사 20명 구함

- 시간당 \$ 2.30
- 경험 있는 사람은 시간당 \$ 3 - 5 수입 가능함.
- 특히 한국사람 환영함.
- 신청 할 곳

SUNSET SPORTSWEAR  
INC.  
419 First Avenue South  
Seattle  
4th Floor

### • Job Bulletin (사람 구함)

#### 1. 한인회 Secretary

- 영어를 잘 하고 한국어도 잘 하는  
여사분들 구함. 영문 타이프도 칠수  
있는 사람.
- 당분간 1주에 2~3시간 봉사(무급)  
하다가 "한인 봉사센터"가 발족할  
때 풀타임으로 채용 할 예정임.
- 연락처... 한인회장 (932-3595)

#### 2. RESPIRATORY THERAPY TECHNICIAN INSTRUCTOR/ Health & personal Services

- 희망자는 다음으로 연락 바람.
- 1977년 4월 18일 4시 30분까지.
- 401 Queen Anne Ave N.  
전화: 587-4155

### 한국 기독교실업인회 초청 모국방문단원 모집

- 신청기간 3월 10일 ~ 4월 10일 까지
- 기독교 신자 및 일반인, 미국민.
- 7박 8일 간다. 공식일정 숙식비는 초청자 측에서 부담.
- 자세한 문서는 김 일천 목사에게 연락 바람  
전화: 524-7906

안녕하십니까?  
김철준입니다.



미국 까지 오셔서 고생되시며 열심히 일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족들의 보다 안정된 생활과  
자라나는 자녀들의 교육 때문이 아니시겠습니까?  
저는 교포사회에 보증을 시작하면서 파는 것에만  
치우치지 않고 보증을 현명히 이용하시어 장래의  
안정된 생활의 뒷바침을 위한 모든 문제에 대하  
여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상담자가 되겠습니다. 언  
제든지 의논하실 일이 있으면 다음 전화 번호로 불려  
주십시오. 상담 내용은 개인성을 보장해 드리며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언제나 책임을 지겠습니다.

뉴욕 생명보험 김 철 준 拜

SEATTLE: 4121 Seattle-First Nat'l Bank Bldg. Seattle, Wa. 98154  
Tel. 363-3704 Res. 232-9207

TACOMA: 6415 Steilacoom Blvd. S.W. Tacoma, Wa. 98499  
Tel. 588-0333

생명보험 • 저축생명보험  
교육보험 • 건강 보험  
주택및은행음자보험

값싸고 좋은 보험 취급하는

## INVESTORS! 보험대리점

교육·생명·저축·연금  
단체건강 보험  
General Agent·Broker

집·아파트·상가 매매는

안 병용 부동산으로  
무료공증업무·투자상담  
Crescent Realty, Inc.,  
Federal Way, wa

안 병용 (PHILIP B. AHN)

세아를 전화: 838-2010 / 라코마전화: 927-7778  
2612 S.W. 332nd St, Federal Way, WA 98003

### 겪고 나서

• 이제는 봄이 성큼 들어 섰나 보다. 몇 날 몇 시간을 '회보'에 매달려 씨름을 하다 보면 언제  
지나 가 버렸는지 금과 같다는 시간의 세월이 열흘 쯤은 간 곳 없다. 이 회보를 만드는 사람의  
정성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계산해 볼 길이 없다. 어느 집 아이들이 비행기를 잡아 날려  
버리기도 하겠고 쓰레기 통에 쳐 박히기도 하겠지. 그래도 어느 가슴엔가 자그마한 위로도 주기는  
했을까? 좋은 글 들이 기다려 진다. 다음 호 걱정은 몇 달의 여유가 있겠지...  
• 편집실 연락처; 4011 S.W. 100th ST. Seattle, WA. 98146. Soo Ho LEE. 전화: 935-5623

## 부동산 매매

가옥    식당    상업건물  
모텔    토지    호텔

김 일 영    Off: 475-6262  
IL YONG KIM    Res: 845-2236

### 한인회비 납부자 명단(계속)

- 25. 오 준걸 ..... \$ 20.
  - 26. Dr. LEE, DAN T... \$ 10.
  - 27. PARK, KYUNG JUNE... \$ 10.
  - 28. KIM, SU CHONG... \$ 10.
  - 29. KIM, SUNG KIL... \$ 10.
  - 30. LEE, KANG PYO... \$ 5.
- (3월 28일 현재)

# A.K 자동차 수리공장

교포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불초소생이 자동차 정비공장을 개업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포들이 자동차 정비를 받으실 때  
부당한 요금을 지불 하고도 차를 제대로 고치지 못하고 고생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15여년 동안 줄곧 자동차업에  
종사 해온 저가 여러분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정비·수리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리면서 우선 지면을 통하여 인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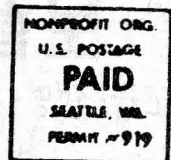
전화: 525-9197  
주소 9500 N.E. Roosevelt Way  
Seattle, Wash. 98115

1977년 3월

유 정길 올림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 SEATTLE, WASHINGTON 98124



인간은 자기를 금수와 같다고 생각해도 안되며, 천사와 같다고 생각해도 안된다.  
쌍방을 다 모르고 있어도 안된다. 쌍방을 다 알아두어야 한다. — 파스칼의 팡세에서 —